

황색종 연초의 세포질적 응성불임 *Nicotiana debneyi* Source를 이용한 F₁ 종자 생산

금완수, 정석훈, 김홍기, 정윤희, 최상주, 조명조

한국인삼연초연구원 수원시험장

황색종 연초의 세포질적 응성불임 *Nicotiana debneyi* source를 이용한 F₁ 종자 생산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몇 가지 시험을 하였던 바 얻어진 결과는 다음과 같다.

응성불임 MSNC567(C567(MSNC567 x NC567))은 임성 NC567에 비하여 삭당종자무게 및 종자수가 적었다.

교배시 모본의 화뢰발육시기에 따른 종자생산 시험에서 개화 1일 및 2일째 처리구는 개화 1일 및 2일전 처리구보다 삭당종자수는 많았으나 천립중은 낮았다.

응성불임 NC567의 암술형태별로 교배하여 얻은 삭당종자수, 천립중 및 발아력의 차이는 없었다.

천립중이 높은 종자(84 mg)와 천립중이 낮은 종자(64 mg)의 발아력 차이는 없었다. 수분수의 화분 발아력은 생육환경에 따라 매우 큰 차이를 나타내었으며 온실내 습도가 높을 때에는 개화 2일째부터 화분 발아력이 현저히 떨어졌으며, 습도가 낮을 경우에는 개화후 3일까지 발아력이 높았다.